

정부 뉴스

니티 아요그(NITI Aayog), 3년 실행 계획 발표

정부의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인도 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 지방, 도시, 지역 개발; 교통, 디지털, 그리고 에너지 사회기반 시설; 인적 사회적 개발과 계획에 대한 경제체제 전환의 내용을 담은 3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Read more](#)

새로운 해외직접투자관련 안건 승인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해서 정부가 4월 24일 6개의 해외직접투자 시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는 경제각료위원회에 이 중 한 가지 시안을 제안하면서 제약부문의 미결된 거의 모든 시안들을 처리했다.

[Read more](#)

모디 총리, 주요 사회기반 시설 실적 검토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주요 공공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항구, 그리고 디지털과 석탄 부문의 실적을 검토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사상최고 건축실적인 평균 130km(81 miles)의 지방도로가 지어졌으며 25,999km(16,155 miles) 이상의 4차선과 6차선의 국도가 건설 되었다.

[Read more](#)

인도, 세계 5번째로 높은 군비지출 국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도의 군비 지출이 2016년 8.5% 증가해 총560억 달러로 세계 5번째 군비지출 국가로 등극했다.

[Read more](#)

인도, 더 많은 개혁에 집중

총리실이 정부의 모든 부처들과 부서들에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한 규정조정을 주문했다. 국가 FDI 정책을 통해 이미 중요 개혁들이 행해졌지만 이제는 각 부처들과 부서들이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야 할 때이다.

[Read more](#)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입찰

인도 정부가 4기가와트 용량의 풍력 발전 지원 프로젝트를 입찰에 내놓을 계획을 검토 중 이다. 인도의 태양에너지조합의 Ashvini Kumar 상무이사는 "이러한 입찰이 다음 달에 첫 번째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ad more](#)

2개월 E-Visa를 통한 관광 촉진

인도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 방문객들에게 현재 1개월 기간의 두 배인 2개월 기간의 전자비자를 발급할 것이다. 인도는 이미 140개 국가들에 대한 전자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4월 1일부터는 사업과 의료목적의 방문을 위한 전자비자도 발급 가능하다.

[Read more](#)

인도, 국제에너지기구 가입



인도가 글로벌 에너지 전망에 더 가시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일원이 되었다. "협회의 활성화"(Activation of Association)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멤버들과 협회국가들의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위한 다리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Read more](#)

부가가치세 첫공개: 인도 정부, 새로운 세금 제도를 위한 정보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화 3억 4천만 달러를 승인

인도 정부가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위한 정보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Saksham 프로젝트 관련 미화3억 4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 IT 인프라 프로젝트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관, 소비세, 행위세의 기존 서비스들의 지원 또한 가능하다. Saksham 프로젝트는 인도계 미국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도입 될 것이다.

[Read more](#)

인도, 2016-2017년 기록적인 풍력 발전 용량 달성

인도 정부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인도가 2016-2017년 기준 목표인 4,000 메가와트를 넘어서는 5,400 메가와트 용량의 기록적인 풍력 발전 용량을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부처에 의하면 2015-16년 최고 수용량은 3,423 메가와트였으며, 2011-12년에는 3,197 메가와트였다. 인도 전체적인 풍력 발전용량은 32,177 메가와트 정도이다.

[Read more](#)

비즈니스 뉴스

IMF: 인도 세계 개혁으로 인도 경제성장 8% 이상으로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총재인 Tao Zhang는 "인도정부가 경제개혁에 중대한 진전을 보였으며 이는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될 부가가치세가 인도의 중기 성장을 8 퍼센트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Read more](#)

모디 총리, 세계 1위 보석제조업 달성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촉구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 안건이 공장의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라트(Surat)지역의 다이아몬드 업계에게 보석류 부문에서 인도가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등극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인도의 보석류 순수출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미화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부터 2017까지 더 증가한 것으로 기대된다.

[Read more](#)

인도 정부, 농부들의 수입의 두 배 증대와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가져올 계획 착수

인도 정부는 식품 가공 처리 부문에 미화9억 달러의 규모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농부들의 수입 두 배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통합계획인 "SAMPADA" 프로그램에 곧 착수한다.

[Read more](#)

아시아개발은행: 인도 2017-2018년 7.4%의 성장 가속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인도의 성장률이 2017-2018년에 7.4 퍼센트의 성장을 보이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7.6퍼센트의 성장을 보여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소비증가와 재정 개혁이 인도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밝은 투자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Read more](#)

마이크로소프트&이베이 인도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Flipkart에 투자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주자인 Flipkar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베이, 그리고 중국 대형전자상거래의 업체 Tencent로부터 미화14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기업의 가치가 미화 116억 달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거래를 통해 이베이는 자사가 소유한 인도 사업들의 일부와 Flipkart의 지분을 교환한다. 하지만, Flipkart는 계속해서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운영된다. 또한 이베이의 투자는 미화5억 달러의 현금투자로 강화되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 국가채무에 대한 해외간접투자 제한치 증가시켜

시장 규제기관인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중앙정부의 해외간접투자 제한치를 미화 23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올렸다. 국가발전 대출금에 대한 해외간접투자의 제한치는 미화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인도연방준비은행이 정부발행증권에 대한 해외간접투자 제한을 2017년 4월-6월 분기 동안 수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Read more](#)

기아차, 인도공장진출



기아 자동차가 아난타푸르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기아차의 첫번째 인도 투자이자 약 미화 11억 달러의 투자인 새로운 생산시설의 건설은 2017년 마지막 분기에 시작된다. 이 새로운 공장은 2019년 하반기 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매 해 약 30만 대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Read more](#)